

초절기교 超絶技巧

12 Etudes d'execution transcendante

논술 난문독해를 위한 12가지 고급독해기술

연세대학교(상)

오르비 논술팀

목차 *Table of Contents*

초절기교 연세대(상)

1번 비교문제를 풀기 위한 궁극의 독해기술

Etude 1. 욕과 대우 (Page 3)

Etude 2. SVO 기법 : Stage 1 동사와 비교기준 (Page 10)

Etude 3. SVO 기법 : Stage 2 부사의 활용 (Page 25)

Etude 4. SVO 기법 : Stage 3 해석비교발문과 목적어 (Page 34)

Etude 5. SVO 기법과 대응 (Page 46)

Etude 6. 복예화일반화 (Page 52)

초절기교 연세대 (하)

2번 자료대응, 우월논증문제를 풀기 위한 궁극의 독해기술

Opening Stage

Etude 7. SVO 기법 : Stage 4 형용사의 활용

Etude 8. 실험문과 동의어치환

Etude 9. 표와 부등호

Etude 10. 그래프와 편차, 기울기

Etude 11. (2014학년도에 뵈겠습니다)

Etude 12. 자료의 계류

超絶技巧

Etude 1

육과 대우

제시문의 논지를 한큐에 잡아내는 마술

연세대는 어려운 제시문의 결론(논지)을
제시문에 등장하는 특정인물이나 집단을 **지칭하여** **육하는**
문장의 **대우(對偶)** 속에 숨긴다.

욕 문장이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지칭하여 그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우리는 제시문은 모두 옳다는 것을 안다. 제시문이 팔으로 메주를 썬다면 썬어야 한다. 이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명제 (p이면 q이다)	역
이	대우 (not q이면 not p 이다)

명제가 옳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은 대우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문장을 명제라고 할 때 그 문장의 대우도 반드시 옳다는 것이다.

이는 연세대가 직접적으로 제시문의 논지를 드러내는 문장을 제시문 속에 넣어 주지 않고 논지파악을 어렵게 하는 트릭으로 자주 활용된다.

제시문 속에서 '욕' 을 찾아 그 문장 전체를 대우로 뒤집으면 연세대가 숨겨 놓은 논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도 그리스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에는 이미 일찍부터 신앙과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처방으로 치유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지닌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오르페우스교의 열광자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자 했다. 앞의 두 사람은 진정으로 종교 창시자의 영혼과 재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종파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한 민족 전체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종파들만이 머리를 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민족이 이미 자체 내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친 무리 본능이나 윤리적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동요 상태를 사람들은 흔히 윤리의 타락이나 부패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알이 성숙하여 껍질이 깨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북유럽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북유럽이 남유럽에 비해 뒤쳐져 있었으며, 상당 부분 같은 유형과 같은 색깔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은, 만족되고 관찰되어야 할 반대의 요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꾸로 힘과 지배욕이 매우 강한 천성을 지닌 인물이 단지 종파에 국한된 미약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치는 경우, 이로부터 그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인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지칭하여, 그에 대해 욕을 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보자.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새로운 사상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이는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그 영향을 받는 대중’을 지칭하여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는 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대우로 뒤집어 보자. 동의어치환(절대구조 참조)에 의해 위 문장은 이렇게 변환된다.

새로움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시키는 다수는 천편일률적이고 저급하다(욕)

이를 대우로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적, 절대적으로 작용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시문 (가)의 논지인 것이다.

최고의 탁월한 이성과 반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자. 그는 어떤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념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작용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은 감각에 의해서는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앞서서 일어났다고 해서 앞의 사건이 원인이고 뒤의 사건은 결과라고 결론짓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 두 사건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우연적일 수 있다.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요컨대 앞에 예로 든 그 사람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 추측할 수도 추론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의 기억이나 감각에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오래 살아서 유사한 대상들 혹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험으로부터 그가 얻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한 대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다른 대상의 존재를 즉각 추리한다. 그러나 그가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산출하는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관념이나 지식은 전혀 가질 수 없다. 또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원인이 되는 대상을 추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두 대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이해력이 이렇게 추리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그에게 확신시켜주더라도, 그는 동일한 사고 과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특정 등장인물을 지칭하여 욕하는 문장을 찾고 이를 대우로 뒤집어 제시문의 논지를 뽑아내시오.

어떤 제시문은 모두 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가장 강력한 욕을 찾아 대우로 뒤집으면 된다.

[유제 2] 2011학년도 모의고사(선택) 제시문 (라)

염상진은 또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건이었다. 그들은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을 살려낼 만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휴전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 그들에겐 휴전이 곧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들의 의지는 고작 그런 식으로 가변적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엇하러 입산을 했던 것일까? 일시적인 피신이었을까? 그럼 왜 작년 말에 실시한 하산 권유를 듣지 않았던 것일까? 저들의 감정적인 초기보복 때문에 산이 더 안전하다는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고생을 하다 보니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휴전소식을 듣게 되자 완전히 변해버린 것일까?

그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도 할 수 없었을까? 자의로 바른 역사를 선택했다면서도 그렇게 역사에 대한 신뢰가 빈약할 수 있을까? 목숨 때문이라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역사의 편에 선 자가 목숨을 변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이고 비겁이다. 애초에 역사의 선택은 목숨의 위험을 뛰어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가 어찌 혁명에 나설 수 있으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투쟁에 뛰어들 수 있는가! 피 흘리기를 주저하고, 목숨 버리기를 무서워하면서 혁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역사를 선택했다면 그런 자들은 반동보다 더 악랄한 적이다! 혁명은 대가를 예약해주지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혁명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고, 과정이며 혁명에 가담하는 자는 그 연료로써 타오르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혁명에서 대가를 바랄 때 목숨에 연연하게 되고, 목숨에 연연하면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짙게 된다. 탈주를 감행한 그 두 사람은 결국 목숨에 연연한 자들이었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특정 등장인물을 지칭하여 욕하는 문장 중 가장 그 수위가 높은 욕이 들어 있는 문장을 찾고 이를 대우로 뒤집어 ‘선택’에 관한 제시문의 논지를 뽑아내시오. (단, 이 때 비유는 풀어야 한다.)

[Tip 비유풀기]

설마 초절기교의 독자들 가운데 이 정도의 비유를 풀지 못할 독자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시문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답안은 비유를 풀어서 서술해 주어야 한다.

이를 테면, ‘피 흘리기를 무서워하고 목숨 버리기를 아까워하다’ 라는 비유는 ‘희생을 기피하다’ 로, ‘열매만 따먹으려 하다’ 는 ‘대가만 바라다’ 로 비유를 풀어 주는 것이다.

이북(以北) 공산주의 한인(韓人)들이 이남(以南) 민주주의 한인들을 침략한 것이 단순한 내란(內亂)이라면 우리끼리 싸워서 남(南)이 이기거나 북(北)이 이기거나 국내에서 판결될 것인데,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같이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내란이 아니고, 강한 이웃나라가 뒤에 앉아서 이북 괴뢰군(傀儡軍)을 시켜 이남 민주 정부를 파괴한 후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저의 속국(屬國)을 만들자는 야심을 가지고 침략을 시작한 까닭에 민주세계에서 이와 같이 공분(公憤)을 느끼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버리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남의 주권 아래 두며 민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놓자는 것이 그 분자(分子)들의 목적이요, 살인과 방화를 일삼아서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미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미국 백성이 아니요, 영국 백성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영국 백성이 아니요, 중국 사람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며, 한인(韓人)으로 공산당 된 사람은 한인의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선동에 빠져 나라를 팔고 민족을 남의 노예로 만들려고 활동하는 분자들은[중략]..... 동족(同族)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인류라고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하략].....

공산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노예 되기를 감수하던지 우리의 자유와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변치 않고 싸우던지 하나를 택해야 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특정 등장인물을 지칭하여 욕하는 문장 중 가장 그 수위가 높은 욕이 들어 있는 문장을 찾고 이를 대우로 뒤집어 ‘동족’에 관한 제시문의 논지를 뽑아내시오.

超絶技巧

Etude 2

SVO 기법 : Stage I

동사를 통해 비교기준 잡아내기

연세대 제시문의 공통된 논리구조는 주체(S) - 역할(V)- 목적(O) 이다.
이 때 목적자리에는 무조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놓는다.
역할을 서로 비교하면 비교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SVO기법이란?

연세대 제시문은 모두 S(주체)-V(역할)-O(목적)의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본 과에서는 제시문의 SVO관계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독해하여 비교기준을 찾아 확고한 정답을 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S(주체)	V(역할)	O(목적)
각 제시문의 주어	각 제시문의 동사 (주어가 하는 행위) ‘주로 2글자의 한자어’	해당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2009학년도 수시 : 대립 상황의 해결 2009학년도 정시 : 창조, 파괴 2010학년도 수시 : 공공성의 실현 2011학년도 인문 : 죽음 2011학년도 사회 : 인과론 2012학년도 인문 : 낭비 2012학년도 사회 : 새로움

Caution 1

‘V’ 를 찾을 때 한국어의 동사, 즉 ‘XX하다’ 로 끝나는 것을 찾으면 안된다.
‘영어의 동사’ 를 찾는 것이다.

결작 아닌 것은 결작과 결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것이다’ 가 동사이지만, 이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Not masterpieces mediate(매개) masterpieces (결작 아닌 것은 결작을 매개한다)
와 같은 문장이 되므로 ‘매개’ 가 본 과에서 의미하는 V(동사) 인 것이다.

Caution 2

‘V’ 는 주로 2글자의 한자어이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이 문장에서 2글자의 한자어로 된 동사를 찾을 때, ‘경멸’ 을 찾으면 옳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경멸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Caution 3

연세대 모든 제시문은 SVO 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 느낌상 SVO 관계로 풀어낼 수 없는 듯 보이는 문제는 V와 O 사이에 전치사 'for' 나 'to' 를 집어넣어 '목적어' 가 아닌 '주체의 목적' 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Ex 2010학년도 수시 공공성 : S V for O

정부는 / 공공사업을 행한다(V) / 국민의 안녕을 위해 (공공성의 실현 : 'for' O)

Ex 2009학년도 정시 창조와 파괴 : S V to O

자본주의는 / 혁명을 일으킨다(V) / 지배계급이 되기 위해(창조하기 위해 : 'to' O)

〈예제〉

문제 발문

한 사회에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2012학년도 사회계열)

S(주체) 는 다수이며, O(목적)자리에는 문제 전체의 주제가 와야 하므로 새로움이 와야 한다.
V(역할) 자리에는 제시문으로부터 주로 2글자의 한자어로 된 동사를 찾아 채워 준다.

이를 테면, 제시문 [나] 에서 동사를 모두 찾아보자.

제시문 (나)

예술에서는 발전 대신에 항상 독창이란 것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독창이란 것은 자기 완결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개의 예술의 세계는 제각기 독립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서 혼자서 완결되는 세계다. 그러면 고전과 고전과의 사이에 **절단을 이어가는** 것, 즉 예술의 역사의 비연속의 연속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결작 아닌 것, 즉 범작이나 졸작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갈 필요에 직면한다. 예술사에 있어서 결작 아닌 것은 예술적인 **전승**의 수단이 된다. 예술에 있어서 전승은 결작 아닌 것을 통하여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류(亞流)라는 현상에서 들 수 있다. 아류란 결작의 **모방**이다. 모방은 흔히 결작을 **모독**하고 그것을 **개악(改惡)**한다. 그러면 아류란 결작의 파괴지 그 전승이 되느냐고 할지 모르나, 전승이란 이러한 **모독**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람은 아류에 전승된 결작에 대하여 분명히 그 모독을 책(責)한다. 그러나 아류에 대한 이 비난 속에는 결작에 작()한 **존경**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하게도 모독을 통하여 그것의 존경에 도달하는 것은 종교에서 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배신자가 신을 모독했다고 신을 경멸하지는 않는 것을 잘 안다. 모독을 죄악이라고 느끼는 심리 속에는 항상 신에 대한 신성한 **숭앙**이 들어있는 법이다. 이 숭앙에 의하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다시 신에게로 **일보 접근**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역시 결작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결작 아닌 것은 결작과 결작과를 **매개**한 것이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모방 모독 개악 존경 숭앙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SVO를 활용하여 동의어 치환하기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 무엇을 다수로 읽어야 할지, 무엇을 새로움으로 읽어야 할지 즉 동의어치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SVO기법을 이용하면 동의어치환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무엇이 무엇을 모방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을 모독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을 개악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을 존경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을 숭앙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을 전승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에게 일보 접근시키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무엇이 무엇에게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무엇이 무엇에게 인도하는가? 아류가 걸작에게
무엇이 무엇을 매개하는가? 아류가 걸작을
무엇이 무엇의 절단을 이어가는가? 아류가 걸작의

따라서 ‘아류’ 는 곧 다수를 의미하며, ‘걸작’ 은 곧 새로움을 의미한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아류 (=걸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모독 개악 존경 숭앙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걸작 (=고전, 독창)

SVO를 활용하여 비교기준 잡아내기

또한, SVO를 활용하면 비교기준을 쉽게, 그것도 간결하고 명확하게(precisely)잡아낼 수 있다.

우선, SVO를 활용하여 비교기준을 잡아내려면 ‘단어의 통일’ 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모방, 모독, 개악은 모두 같은 뜻이다. 모독과 개악은 모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만 남기고 모독과 개악은 지운다.

존경과 숭앙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만 남기고 숭앙은 지운다.

‘전승, 일보 접근, 한 걸음 다가서다, 인도, 매개, 절단을 이어가다’ 역시 모두 같은 뜻이므로 대표격의 단어인 ‘전승’ 만을 남긴다.

따라서 (나)의 SVO 관계가 이렇게 정리된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아류 (=결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존경 전승	결작 (=고전, 독창)

이와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제시문 (다)를 가지고 해 보자. 우리는 이미 2번문제 발문으로 인해 제시문 (가)가 왕따 제시문이며 (나,다)는 패거리 제시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1과에서 다룬 ‘욕과 대우’ 를 통해서 제시문 (가)의 논지가

“바람직한 다수는 새로움을 보편화, 절대화하지 않는다” 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다’ 를 비교하는 비교기준을 SVO를 통해 잡고자 한다.

제시문 (다)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명상할 때,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다시 지우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문제의 해결책을 붙잡게 된다. 그리고 이순간부터 그는 희미한 빛에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래된 호기심이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개념을 한 사회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그러한 호기심, 예컨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이전에 말이다. 아니면 한 사회가 야심적으로 꿈꿔온 거대한 정복을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내의 인간 활동이 그 야망, 예컨대 증기를 이용한 생산기계, 운송수단, 항해수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이전에 말이다. 우선 사람들(다수이다! 다수가 무엇을 하는가?)에게 제기된 문제가 온갖 모순적인 **창안**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가 등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든다. 이후로는 그것이 고정적인 기반으로 이용되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인 **발전**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보는 일종의 집단적인 **성찰**이다. 거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뇌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창안자들의 무수한 뇌 사이에서 **모방** 덕분에 생겨나는 **연대**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문자로 **고정**되어 거리나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억의 바탕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개인의 뇌 속에서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보는 개인적 진보와 같이 두 가지 절차, 즉 **대체**와 **축적**을 통해 일어난다. 발견이나 창안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축적 가능하다. 그로부터 논리적인 투쟁과 논리적인 결합이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고자 하며, 그것으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상상 발전 완성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잊게, 대체 모방, 연대 전달, 축적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통일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대체 모방 전달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제시문 (나)와 (다)의 동사를 비교해 보자.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아류 (=결작 아닌 것, 범작, 졸작)	모방 존경 전승	결작 (=고전, 독창)

S(주체) 다수 자리	V(역할)	O(목적) 새로움 자리
사람들 창안자들	창안 대체 모방 전달	어떤 명료한 해석들이나 편리한 기계 (사회적) 진보

- 모방은 (나)와 (다) 모두에 있으므로 쌍으로 지운다.
- 전승은 (나)에는 전승, (다)에는 ‘전달’로 역시 모두 있으므로 쌍으로 지운다.
- 우리는 (가)의 논지가 새로움의 보편화, 절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음을 안다. 이 때, 새로움을 존경하는 것은 새로움을 절대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새로움이 그 이전의 것을 대체하고 자리잡는 것은 새로움을 보편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마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2G 폰은 잊혀지는 현상을 스마트폰의 보편화라 부르는 것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
따라서 이들은 각각 절대화, 보편화로 동의어치환되어 역시 쌍으로 지워진다.

모두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창안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다를 나누는 비교기준을 이렇게 설정한다. 앞뒤로 주어와 목적어를 붙인 뒤 맨 끝에 ‘여부’ 라는 단어만 기계적으로 붙이도록 한다.

다수의 새로움 **창안** 여부

유제 1

다음 두 지문의 SVO 관계를 설정하고 SVO표를 채워 넣은 뒤, 비교기준을 찾아내시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제시문 (가)

인간은 생명체로서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이므로 동물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종과 대조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동물 집단과 그 집단 내 의사소통, 연대성, 공격성에 대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이러한 특수성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넘어서서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 현상이 된다. 매장은 죽은 자를 신속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무겁고 영원한 잠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인상을 재빨리 지우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인간은 상당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며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꼭 붙잡아 놓고자 한다. 우리는 고대의 무덤들에서 발견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여러 형태의 유물들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에 놀란다. 이런 유물들은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종교적인 사안도 아니고 종교를 세속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전이시키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그것에서 인간 실존의 특수한 의미가 파생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다. 가령 새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본능도 놀랍지만 그 새들이 같은 종에 속하는 새들의 죽음에 대해 기피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제시문 (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패를 피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들의 악취와 추악한 모습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이라도 죽으면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 [중략] …… 밀론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해도 죽으면 얼마 안 가서 해골이 되고 결국에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체를 묘지로 보내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안색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들어갈 곳이 장차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호사스러운 묘가 아니라 간소해서 불품없는 묘라는 것을 예측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 [중략] ……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 애착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죽음은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언을 써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곰빼기 식사를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제시문 (가)

S(주체)	V(역할)	O(목적)

제시문 (다)

S(주체)	V(역할)	O(목적)

비교 기준 : 죽음의 () 여부

Caution

- 주어가 발문에 따로 있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람’ 이 주어이다.

[예시] 2011학년도 사회 인과론

	S	V	O(인과론 자리)
제시문 나	사람은	필요 없다.	인과론을
제시문 다	사람은	알 수 없다.	인과론을

- 언어영역 ‘내용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에 있는 것이 지문에 없을 때도 불일치이고, 선지와 지문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도 불일치이다. 마찬가지로 서로 맞는 단어의 쌍이 있을 때에는 쌍으로 지워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의 뒤에 ‘여부’ 를 붙여 주고, 두 제시문의 V에 서로 상충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둘 중 아무거나의 뒤에 ‘여부’ 를 붙여주면 된다.

[정답]

제시문 (가)

S(주체)	V(역할)	O(목적)
인간	함께 하고자 한다 산 자 가운데 꼭 붙들어 놓고자 한다.(연장선) 삶을 넘어서서 생각한다(초월) (풍요롭게) 매장 ¹	죽음, 죽은 자

제시문 (다)

S(주체)	V(역할)	O(목적)
인간	기피 공포, 비탄 (간소하게) 매장	죽음, 죽은 자

비교기준 : 죽음의 기피 여부
(수용 여부도 정답으로 인정)

¹ 스포일러 : 제3과에서 다루게 될 '비교기준과 부사 활용' 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내용이다
.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정답이다.

유제 2

다음 두 지문의 SVO 관계를 설정하고 SVO표를 채워 넣은 뒤, 비교기준을 찾아내시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제시문 (나)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중략].....

오늘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느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서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전국 애국남녀의 합심 합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友邦)들이 축하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애국남녀가 단단한 애국성심(誠心)으로 각각의 책임을 다한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국회 성립 또한 완전무결한 민주제도로 조직되어 두세 개 정당이 그 안에 대표가 되고 무소속과 좌익 색채로

지목받는 대의원이 또한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왕의 경험으로 추측하면 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思想) 충돌로 분쟁 분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爭論)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民意)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없이 다 일심(一心)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만히 해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니 국회의원 일동과 전문위원 여러분의 애국성심을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민주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 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먼저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과거 40년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불의(不義)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邪)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임금이 소인(小人)을 가까이 하고 현인(賢人)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시문 (다)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어, 명의 연호를 버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추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땅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이 호위 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랑캐라고 부른다는데,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옷을 걸치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너의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임금이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너의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하며,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절이 반듯해서 옥같이 맑다 하니 가까이 두려 한다.

내 어여뻐 쓰다듬고 가르쳐서 너희의 충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겠다. 대저 천자의 법도는 무위(武威)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면지와 눈보라는 내 본래 즐기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네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을 어찌 상서롭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 동쪽의 강들이 얼기를 기다려서 군마를 이끌고 건너가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말라. 너의 좁은 골짜기의 아둔함을 나는 멀리서 근심한다.……

제시문 (나)

S(주체)	V(역할)	O(목적)

제시문 (다)

S(주체)	V(역할)	O(목적)

패거리와 왕따를 가르는 비교 기준 : () 여부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 여부

Caution

- 발문에 의해 주어진 ‘방식’, 목적어는 ‘대립 상황의 해결’ 이다.
- 예화일반화는 SVO에 동사 하나를 준다.

Hint 반어법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넌 좀 조용히해!)**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넌 좀 조용히해!)**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반어)**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옷을 걸치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반어)**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반어)**

진짜 까닭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닥치라는 것인가? 이 예화일반화가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동사 하나로 생각하여 SVO 표에 채워 넣는다.

[정답]

제시문 (나)

S(주체)	V(역할)	O(목적)
다수결	복종 자유 의견 표시	조속한 한도 내에 원만히 해결

제시문 (다)

S(주체)	V(역할)	O(목적)
무력(간)	따르라(복종) 닥쳐라 (from 예화일반화)	

패거리와 왕따를 가르는 비교 기준 : (복종) 여부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자유의견 표시 가능) 여부

超絶技巧

Etude 3

SVO 기법 : Stage II

비교기준을 찾기 위한 부사의 활용

동사로만 비교기준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HOW(어떻게) - WHERE(어디서) 순서로 부사를 찾아 비교한다.

앞서 제2과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모두 ‘동사’ 만 비교하면 비교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일부 연세대 문제들의 경우 (특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옛 문제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더욱 두드러진다.) 동사의 비교만으로는 비교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서 2과의 예제 1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 적 있었다.

	S	V	O(죽음 자리)
제시문 가	인간	(풍요롭게)매장	죽은 자
제시문 다	인간	(간소하게)매장	죽은 자

괄호 안에 들어있는 ‘풍요롭게’와 ‘간소하게’는 서로 상충되는 의미이고 하나의 작은 비교기준을 만들어 낸다. 즉 ‘죽음의 기피 여부’로부터 비롯되는 ‘매장 풍습의 차이’ 이다.

이처럼 같은 동사라 할지라도 부사에 따라 비교기준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본 과의 Main Idea는, ‘동사만으로 비교 기준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부사를 찾아라. 부사는 어떻게 (how), 어디서(Where)의 순서로 찾아라’ 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풀어 최소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한 주요한 두 가지 비교기준 (소위 이것을 우리는 제1비교기준, 제2비교기준이라 불러 왔고, 각각 패거리와 왕따(혹은 사과 두개와 배 하나)를 나누는 기준, 패거리를 서로 나누는 기준이라 불러 왔다) 이 이렇게 부사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제

문제 발문

‘창조’와 ‘파괴’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2009학년도 정시)

3번 문제에 의해 (가)가 왕따제시문임을 우리는 안다. (나)와 (다)의 비교를 통해 비교기준을 잡아 보자.

제시문 (나)

자본주의는 본질상 경제 변화의 한 형태이거나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정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진화적 특성은 단순히 경제적 삶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경제행위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며, 산업 변화는 종종 이러한 변화들(전쟁, 혁명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변화들이 산업 변화의 일차적 동인(動因)은 아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진화적 특성은 인구와 자본의 자동적 증가나 금융시스템의 예측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 방식 또는 수송 수단,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 기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산업 조직의 구성 등으로부터 온다. [……중략……]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찍이 윤작(輪作), 쟁기질, 거름주기와 같은 합리적 농업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곡물 창고, 철도 등과 연계된 오늘날의 기계화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체계의 역사는 잇단 혁명의 역사였다. 대장간 화덕에서 오늘날의 용광로에 이르는 철강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물레방아에서 현대적인 발전소에 이르는 전력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역마차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수송의 역사도 그러하다. 해외 또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철공소에서 U.S. Steel*로의 발전은 — 생물학의 용어를 쓴다면 — 모두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며, 이것은 쉴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이다.

제시문 (나)는 다음과 같이 SVO 관계가 설정된다.

S	V	O
자본주의	혁명 발전 (=진화, 성장)	오래된 것을 부수고(파괴) 새로운 것을 만든다(창조) 창조적 파괴

제시문 (다)

역사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일련의 위계적인 신분들 사이에 맺어진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영주, 가신(家臣), 장인, 견습공, 농노 등이 있었으며, 각 계급 내부에도 거의 예외없이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통해서 출현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역시 계급 대립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그리고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 단계에는 각각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 발전이 수반되었다. 원래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영주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던 신분에서 출발하여, 중세 꼬뮈와 같은 자위능력을 갖춘 자치공동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독립적인 도시공화국, (프랑스에서처럼) 군주의 과세대상인 '제3계급'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가내수공업 시기에는 반(半)봉건적 또는 절대주의적 군주제에서 귀족에 대한 대항 세력이자 군주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근대 산업 및 세계시장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부르주아 계급은 근대 대의제 국가를 통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쟁취했다. 근대 국가의 행정부란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다름 아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상전(上典)에 묶어놓았던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별거벗은 이해관계 내지는 '금전적 수수관계'만 남겨 놓았다. 종교적 열정과 고귀한 열망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기중심적인 차가운 이해타산으로 바꿔놓았다. 인간적인 가치를 교환가치로, 또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비인간적인 자유로 대체했다.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베일에 가려있던 착취를 적나라하고 물엿치하며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착취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중략.....]

관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왔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각 시기의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계급의 관념이었다. 관념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고,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산업의 발전은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리 상태를 결사(結社)를 통한 혁명적 단결로 바꿔놓는다. 따라서 근대 산업의 발달은 부르주아 계급의 생산과 착취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킨다. 결국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활동을 통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모두 불가피하다. [.....중략.....]

정치권력이란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에 불과하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조건들을 폭력적으로 지양(止揚)한다면, 이는 곧 계급 대립의 조건들 및 계급 일반, 더 나아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지위까지 지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계급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제시문 (다)는 다음과 같이 SVO 관계가 설정된다.

S	V	O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전	몰락, 찢어버리다 (파괴) 승리, 지배계급이 되다 (창조)

동사만으로 찾았을 때, 제시문 (나)와 (다)의 비교기준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 다 ‘혁명, 발전’ 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이 때 부사의 도움을 받아 비교기준을 찾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제시문 (나)의 일부분을 보면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략)… 실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하략)

‘발전’ 의 동의어인 ‘성장’ 앞에 ‘지속적으로’ 라는 부사가 붙어 있다.

‘혁명’ 앞에 ‘실 새 없이’ 라는 부사가 붙어 있다.

이는 ‘어떻게’ 에 해당하는 ‘HOW’ 의 부사이다.

이 부사를 괄호 안에 넣어 붙여 보자.

	S	V	O
제시문 (나)	자본주의	(실새없는)혁명 (지속적인)발전	창조적 파괴
제시문 (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전	몰락, 찢어버리다 (파괴) 승리, 지배계급이 되다 (창조)

제시문 (다)는 역대 연세대 제시문 중에서 최악의 난이도와 길이를 자랑하는 문제로, 이 제시문 하나 때문에 본책은 또다른 챕터를 준비했다. Etude 6의 ‘복예화일반화’ 편에서 자세히 볼 것이다.

각설하고, 이러한 ‘지속성’ 은 바로 이 문제의 (나)와 (다)를 가르는 비교기준이었다. 부사로부터 비교기준이 등장한 것이다.

동사만으로 비교기준을 찾기 어려울 때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를 찾는다.

찾을 때에는 어떻게(HOW)→어디서(WHERE)의 순서가 되게 한다.

유제

다음 두 지문의 SVO 관계를 설정하고 SVO표를 채워 넣은 뒤, **부사어에 집중**하여 비교기준을 찾아내시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제시문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 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 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 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 강박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제시문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 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시민사회의 공론장(公論場)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놓고서 공권력과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타임즈’ (The Times)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다른 제도들도 출현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했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제시문 (가)

S(주체)	V(역할)	O(목적)

제시문 (나)

S(주체)	V(역할)	O(목적)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

Caution

- 발문에 의해 주어는 ‘주체’, 목적어는 ‘공공성의 실현’ 이다.

Hint 다른 지문이 주는 힌트

한 제시문이 다른 제시문에 대해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힌트는 대부분 비교기준으로 연결되기 쉽상이다. 특히, 제시문 속에 ‘패거리’ 에 속하는 다른 제시문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제시문 (가)

S(주체)	V(역할)	O(목적)
정부	제어 (좁은 공적 영역에서) 공공사업	국민(공중)을 평안하게 함

제시문 (나)

S(주체)	V(역할)	O(목적)
시민사회	(사적 영역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영역에서) 공권력과 논쟁	국민(공중)의 이익을 쟁취함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공적 영역의 범위)

- 예제와는 달리 ‘WHERE’ 부사를 통해 비교기준을 찾아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공적 영역 범위의 차이’ 라는 비교기준은 제시문 (나)에서 유심히 보고 지나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첫부분에 제시문 (가)의 국가를 언급하며 ‘좁은 의미의 공적 영역’ 이라 지적하는 부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超絶技巧

Etude 4

SVO 기법 : Stage III

해석 비교 발문과 목적어 활용

일반 비교 발문보다 한 단계 어려운 해석비교 발문이 등장할 경우
무조건 하나의 비교기준은 'XX의 정의(Definition)' 이다.

해석비교 발문이란 무엇인가?

2010학년도 수시 공공성 문제의 발문은 다른 문제들과는 약간 달랐다.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이 문제에서 비교해야 할 것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아니다!

공공성 실현 주체가 (가)에서는 국가, (나)에서는 시민사회, (다)에서는 개인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안다. 그것을 **비교기준이랍시고** 써 놓고 합격을 바라는가?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당신이 비교하기를 원한 것은

“(가)에서는 공공성의 실현을 대체 무엇이라 해석하며, 왜 그 실현 주체를 국가로 보는가?”

“(나)에서는 공공성의 실현을 대체 무엇이라 해석하며, 왜 그 실현 주체를 시민사회로 보는가?”

“(다)에서는 공공성의 실현을 대체 무엇이라 해석하며, 왜 그 실현 주체를 개인으로 보는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류의 비교 발문을 일반적인 비교 발문보다 한 차원 높은 ‘해석비교 발문’이라 부른다. 애초에 비교문제 발문의 어미도 ‘비교하시오’ 인 다른 문제들과 달리

‘차이점을 ‘분석’ 하시오’ 로 등장하여 무언가 한 차원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바로 이 문제를 예제로 삼아, SVO 표를 작성해 보자.

문제 발문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제시문 (가)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와 기력은 사람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대업과 정부의 법도가 세워졌다. 의롭지 못한 무리들은 과격한 기질로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근본 뜻이다.

정부의 직분은 나라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전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법치를 확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국과의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군대 양성과 도로 건설, 학교 설립과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안녕과 문명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개화되었는지 미개한지의 구별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군대가 없으면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방어하며 진압하겠는가.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찌 편리하게 이동하겠으며,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찌 윤리와 기강에 밝고 기술에도 정통하여 풍속이 문란해지거나 가난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든지 자신들의 생애를 편안히 하여, 집안에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 처자와 즐거움을 누리며, 집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재미있게 놀더라도, 도둑을 맞을 우려와 재앙을 만날 공포가 없는 것이 모두 정부의 덕택이다. 만약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 정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하며, 강폭한 자가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들 누가 막아주겠는가.

제시문 (나)

좁은 의미에서 ‘공적’(公的)이라는 말은 ‘국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이런 속성은 사법권의 규제와 정당한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연관된다. 국가기구의 권력에 맞서 생겨난 것이 시민사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근대적 관계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사적 영역이 공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의 영역이다. 즉,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다.”

시민사회의 사적 영역에 관한 공중(公衆)의 관심사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한되지 않고, 공중이 그 관심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은 더욱 발전했다.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 맞서게 된 사회는 사적인 부문을 공권력에서 분명히 분리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를 사적인 가정의 범위를 넘어 공중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행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지점에서 공중은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비판적 판단력을 키웠다.

시민사회의 공론장(公論場)은 개인들이 결집한 공중의 영역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권력 그 자체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는 이제 국가에 의해 규제되어 온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에 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놓고서 공권력과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 대결의 매개가 시민들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특수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의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비판적 기구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타임즈' (The Times)와 같은 새로운 거대 일간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중의 다른 제도들도 출현했다. 공적 집회도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했고 정치적 연합체 역시 많이 생겼다.

제시문 (다)

공리 (utility)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시키거나 억누르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이 경우에 이 모든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SVO 관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S(주체)	V	O(공공성의 실현)
(가)	국가	제어 (좁은 의미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사업	국민(공중)의 안녕, 평안, 보호
(나)	시민사회	(사적 영역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영역에서) 공권력과 논쟁	공중의 이익 쟁취
(다)	개인	공리의 원리를 따름	개인의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함.

우리는 이 문제의 세트에 딸려 있는 2번 문제의 발문에서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패거리 제시문이 (가,나)이고 왕따 제시문이 (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나)와 (다)는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목적어 부분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O(공공성의 실현)
(가): 국민 (공중)의 안녕, 평안, 보호
(나): 공중의 이익 쟁취
(다): 개인의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함.

공중의 안녕, 평안, 보호란 결국 무엇인가? 공중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렇다. 공중의 이익과 동의어인 것이다.

(나)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중의 이해관계(이익)을 공공성의 실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같기 때문에 제시문 (다)가 배(왕따 제시문)인 것이고, 2번 문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2번 문제는 논술실록의 답안을 참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공공성’이란 곧 ‘공중의 이익’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패거리-왕따 콤수는 결코 콤수가 아니다!

각설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비교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공공성의 정의’이다. 각자가 해석하는 공공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뿐만 아니라, ‘해석’을 비교하라고 나오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목적어 비교를 통해 무조건 비교기준 하나를 ‘XX의 정의’로 잡으면 된다.

유제

다음 세 지문의 SVO 관계를 설정하고 SVO표를 채워 넣은 뒤, **목적어에 집중**하고, ‘한 제시문이 주는 다른 제시문의 힌트’를 생각하며, 비교기준 두 가지를 찾아내시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2008 수시 변형)

제시문 (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이다.

*

군자는 중용(中庸)에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反)하여 행동한다.

*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 중(中)에 맞추어 행동함이다. 소인이 중용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함이다.

*

군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한 처지에 있다면 부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다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오랑캐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오랑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환난에 처해 있다면 환난에 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군자는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윗자리에 있을 때에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을 때에는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원망이 없게 될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하게 처신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보여주었듯이, 걸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정치가 흥성하게 될 것이고 걸맞은 사람이 없다면 그 정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릇 정치는 갈대와 같다.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

중용의 도리는 지극(至極)하도다!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

도가 행하여지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어진 사람은 지나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봉록을 사양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칼날도 뱉을 수 있지만, 중용의 도리는 쉽게 실천할 수 없다.

제시문 (나)

우리는 이제 대다수의 국가와 사람들에게 최선의 정치질서와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성이나 예외적인 재능과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교육 수준 또는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하는 정치질서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과 대다수의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질서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 중략 ...]

우리가 <윤리학>에서 나온 언명들, 곧 (1) 진실로 행복한 생활이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선의 생활이며, (2) 선이란 중용에 있는 것이라는 언명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최선의 생활방식은 중용에, 즉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용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아가 시민들이 좋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정치질서를 평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질서란 시민들의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는 세 개의 계급이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급 [... 중략 ...]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며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되고자 한다. 다른 어떤 계급보다 중간계급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급에 기초를 두는 국가가 최선의 질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계급이야말로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안전하다. [... 중략 ...]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고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는다. 또한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반(反)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한다.

포킬리데스(Phokylides)*의 소망은 옳았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많다.

나도 국가의 중간계급이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진다. 첫째, 최선의 형태를 가진 정치사회는 권력이 중간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이며, 둘째,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국가가 좋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계급의 규모는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급을 합한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계급 중 어느 하나보다는 커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간계급이 어느 한쪽에 가세하여, 서로 적대하는 양 극단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아주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민주주의 또는 단순한 과두정치 심지어 폭군정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중간계급이 지배하는 정치질서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정치질서로부터는 이러한 폭군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작다.

제시문 (다)

어떤 사람도 독창성이 인간사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예전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보다 계몽된 행위와 더 나은 취향과 새로운 감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이세상에 항상 필요하다. 기존의 방법과 관행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시도로 기존의 관습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전체로 볼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소수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고여 썩어가는 물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만일 세상에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 관행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행해지게 됐는가를 망각하고 마치 소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만약 항상 새로운 독창성을 가지고 신념과 관행이 인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과 관행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비잔틴 제국에서와 같이 문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천재는 극소수이다. 천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천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천재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개성이 강하다. 천재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제한된 몇 가지 유형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천재들이 소심하게 행동하여 강제적인 틀에 적응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억압되는 데 동의한다면, 사회는 그 천재들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강한 성격을 소유하여 이 굴레를 타파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난폭한 사람’, ‘괴팍한 사람’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이가가라 폭포에게 왜 네덜란드 운하처럼 독 사이를 온순하게 흐르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천재



	S(주체)	V	O(이상 사회의 실현)
(가)			
(나)			
(다)			

패거리와 왕따를 가르는 비교 기준 : () 여부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

[정답]

	S(주체)	V	O(이상 사회의 실현)
(가)	군자	중용의 도리를 따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행동함)	정치의 흥성
(나)	중간계급	중용을 실천 (음모를 꾸미지 않음)	최선의 형태를 가진 정치사회 극단적 민주 X 과두정 X 폭군정치 X
(다)	천재	계몽 공헌 새로운 것을 만듦	천재가 잘 성장하는 사회

패거리와 왕따를 가르는 비교 기준 : (중용) 여부

패거리를 가르는 비교 기준 : (이상 사회의 정의)²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의 이상사회를 판단하는 힌트를 주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민주주의 또는 단순한 과두정치 심지어 폭군정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라는 구절에서, ‘과두정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정치’ 를 의미하며, 그것은 제시문 (가)의

중용의 도리는 지극(至極)하도다!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백성(중간계급)이 아닌 흔치 않은 ‘군자’ 에 의해 이끌어져 나가는 정치와 같다. 즉, (가)와 (나)는 이상사회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 (가)는 과두정, (나)는 ‘극단적이지 않은’ 민주정인 것이다. 이처럼 한 제시문이 다른 제시문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제시문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읽기 바란다.

² ‘중용의 정의’ 역시 기본적으로는 같으나 교묘하게 서로 다르다! 이 점까지 깨알같이 잡아 쓴 학생이 있을까?

超絶技巧

Etude 5

SVO 기법과 대응

SVO기법과 부사, 목적어 개념을 활용하여 대응문제도 풀 수 있다.

SVO 기법은 비교 뿐만 아니라 대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령 2012학년도 인문계열 '낭비' 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오답자를 냈었던 다음의 사례를 예제로 살펴보자.

예제

문제 발문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활용하여' 와 '분석하시오' 라는 내용을 발문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대응이다. 여기서 핵심은 제시문 (다)에서 무엇을 '낭비' 로 읽어야 할지 동의어를 치환하는 일이었다. 많은 불합격자들이 '망각' 을 '낭비' 로 읽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당연히 오답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시문들의 SVO 관계를 한 번 짚어 보자. O 자리에는 당연히 전체 주제인 '낭비' 가 와야 함은 자명하다.

제시문 (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활력을 임의로 이곳저곳에 소모하려는 정신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발현 방식 역시 세상이 진보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표출되는가'를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보통 '도락(道樂)'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락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총을 메고 사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나아가서 어떤 강요 없이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또 철학도 되므로, 언뜻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모두 도락의 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차나 전화 등이 설비되어 있다고 해도 “꼭 오늘은 저쪽까지 걸어서 가고 싶다.”는 식의 도락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일 년에 두세 번은 있습니다. 원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피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산보라는 사치도 요컨대 이 활력 소모의 부류에 속하는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생명 보존 형태의 일부분입니다.

도덕가라면 이 도락 근성의 발전을 꾀함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덕상의 일일 뿐 사실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활력을 소비하는 이 궁리 정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활동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무적 행동을 하는 인간도 내버려두면 자아본위(自我本位)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S(주어)	V	O(낭비 자리)
인간, 사람들	어쩔 도리가 없다 원해서 하다	도락, 소모하려는 경향 문학, 과학, 철학 등 대단히 어 려운 문제가 되는 것

제시문 (나)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이를 벽돌쌓기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벽돌공의 동작들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길브레스는 벽, 반죽통, 벽돌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 발이 각각 디더야 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또 그는 반죽통과 벽돌의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를 고안해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놓을 탁자를 둬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은 위치에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두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반죽을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벽돌공에게 벽돌을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화차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운 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의 반죽통 가까이에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질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의 낭비가 줄었다.

길브레스는 벽돌공들이 반죽 위에 벽돌을 놓고 접합부의 두께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흙손의 손잡이 끝으로 벽돌을 몇 차례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이후 그는 반죽의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벽돌을 누르는 손의 압력으로 접합부의 적당한 두께를 손쉽게 유지하는 법을 고안했다.

S(주어)	부사 + V	O(낭비 자리)
프랭크 길브레스	(고안하여, 조정하여) 없애다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이들을 부사와 목적어까지 모두 활용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S	부사 + V	O(낭비)
(가)	인간, 사람들	어쩔 도리가 없다 원해서 하다	도락, 소모하려는 경향, 문학, 과학, 철학 등 대 단히 어려운 문제로 발 전하는 것
(나)	프랭크 길브레스	(고안하여, 조정하여) 없애다	벽돌공에게 작업 속도를 늦추고, 피로감을 상승 하게 하는 요소들

동사들 간의 비교로 ‘없앨 수 있는가의 여부’ (어쩔 도리가 없다 VS 없애다)
 목적어 간의 비교로 ‘낭비의 유용성’ (인간에게 고등 지식이 되는 것 VS 인간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으며, 비교기준은 두 가지를 합쳐
 ‘낭비의 유용성 및 제거 가능성’ 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Etude 2~4에서까지 배운 내용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시문 (다)는 어떨까?

제시문 (다)

기억에 망각이 특이하게 혼합되는 것은 우리 정신에 있는 선택 작용의 한 예이다. 선택은 그 위에 정신이란 배를 건조할 뼈대가 된다. 그리고 기억을 위해 선택이 쓸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간을 회상하려 할 때 그것이 지속된 원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결코 사고를 앞으로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회상된 시간들은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 원근 단축은 그 시간들을 채웠던 수많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원근 단축이라는 축약 과정은 이와 같은 결손을 전제로 한다. 먼 옛날의 일을 떠올리기 위해 그 일과 현재의 우리 사이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면, 그 조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이루어지는 조건의 하나가 망각하는 것이라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완전히 망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망각은 기억의 질병이 아니라 기억을 건강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망각 과정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망각되었던 것이 다음 날에는 기억날 수도 있다. 우리가 상기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그 시도를 포기하자마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스레 정신 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들이 여러 해 동안 철저하게 망각된 다음에도, 어떤 대뇌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잠복된 연상 통로가 개방되어 재생되는 일도 가끔 있다. 마치 사진사의 약물이 콜로디온 필름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림을 현상해 내듯이 말이다.

S(주어)	부사 + V	O(낭비 자리)
인간 (‘우리’)	선택하여 지우다 원근 단축하다 생략하다 (변칙적으로) 망각하다	(쓸모없는) ‘기억’

그렇다. SVO 관계를 따져 보면 동사 자리에는 ‘망각, 생략, 단축, 선택, 지우다’ 따위의 말이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는 ‘기억의 일부’ 가 들어가기 때문에 망각을 낭비로 읽어서는 오답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전체의 답안을 서술해 내기 위해 (가), (나), (다)의 SVO 표를 하나로 통일해 보자.

	S	부사 + V	O(낭비)
(가)	인간, 사람들	어쩔 도리가 없다 원해서 하다	도락, 소모하려는 경향, 문학, 과학, 철학 등 대 단히 어려운 문제로 발 전하는 것
(나)	프랭크 길브레스	(고안하여, 조정하여) 없애다	벽돌공에게 작업 속도를 늦추고, 피로감을 상승 하게 하는 요소들
(다)	인간(‘우리’)	(변칙적으로) 망각하다, 없애다	쓸모없는 기억

제시문 (가) 와 (다)의 동사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낭비는 어쩔 도리가 없는 데 비해 (다)에서는 삭제의 대상이다. 또한 목적어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 낭비의 정의는 문학, 철학, 과학 등 유용한 것이 되는 것임에 비해 (다)에서는 쓸모없는 기억이다. 따라서 (다)는 (가)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와 (다)의 동사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없애다’ 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적어를 비교해 봐도 (나)와 (다) 모두 낭비를 쓸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는 (나)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겠는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불일치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사가 같을 때는 어찌 해야 하는지를 떠올리면 그만이다. Etude 3에서 동사가 같을 때에는 HOW-WHERE의 순서로 부사를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부사를 찾아서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낭비를 없애는 과정이 조정할 수 있음에 비해 (다)에서는 변칙이 있다. 이 점까지 정확하게 잡아 짚어야 하는 것이다. SVO 기법으로 부사와 목적어까지 모두 활용하여 대응을 푸는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세대에서 사례대응이 출제된 경우가 최근에 존재하지 않아 (2008 학년도 수시의 경우 문제의 본 발문은 사례대응이지만, 이미 Etude 4에서 한 번 유제로 푼 적이 있다) 더 많은 유제로 연습할 수 없다. 하지만 만일 또다시 사례대응이 등장한다면 SVO 관계를 부사와 목적어까지 꼼꼼히 따져 두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超絶技巧

Etude 6

복예화일반화

다른 두 제시문에 비해 특별히 지 혼자 긴 녀석이 등장할 경우,
예화 일반화가 두 번 나오는 경우를 의심하라.

예화 일반화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막론하고 제시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즉, ‘이야기로 구성된 제시문에서 이야기를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무조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화 일반화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이미 Etude 2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우리는 본 적이 있다.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넌 좀 조용히해!)**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넌 좀 조용히해!)**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반어)**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옷을 걸치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반어)**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반어)**

칸은 조선 국왕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이 예화의 메시지를 단 하나로 통일해 보면 ‘닥쳐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화 일반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다. 2004학년도 정시 기출인 다음의 괴악한 제시문을 보자. 이 제시문의 메시지를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가르가멜이 어린애를 낳게 된 상황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향문이 빠져버릴 일이다.

2 월 3 일 저녁, 고드비요(gaudebillaux)를 너무 먹은 나머지 가르가멜의 향문이 빠져버리고 있을 때였다. 고드비요란 쿠아로(coiraux)의 기름기 있는 내장 요리를 말한다. 쿠아로란 여물통과 프레기모(prezguimaulx)에서 살찌운 소의 고기를 말한다. 프레기모란 일 년에 두 번 풀이 나는 곳을 말한다. 이들 중 367,014 마리를 잡아, 사육제 마지막 날 소금에 절인다. 봄이 왔을 때, 소금기 있는 고기를 기름으로써 술판을 더 잘 벌이기 위해서이다.

선량한 그랑구지에는 이것을 너무 즐긴 나머지 모든 음식마다 한 국자 가득 청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는 이 모든 내장 요리가 그다지 권할 만하지 못한 만큼, 조금만 먹으라고 했다. "똥자루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똥을 먹고 싶다는 거지"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여섯 가마 두 말 여섯 되를 먹었다. 오, 그 얼마나 사랑스런 배설물이 그녀 몸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가!

얼마 후 가르가멜은 숨을 몰아쉬며 울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산파들이 몰려와 아래에 손을 대보았는데, 맛없고 더러운 오물 덩어리가 나온 것을 보고는 어린애인 줄만 알았다. 하나 그것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내장 요리를 너무 많이 먹은 까닭에 여러분이 '직장(直腸)'이라 부르는 곧은창자가 늘어나면서 빠져나온 향문이었다.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자궁의 태반엽이 늘어나 버렸고, 그래서 태아는 대신 공정맥(空靜脈) 안에 파고들어 횡경막을 따라 올라가 어깨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맥이 두 가닥으로 나뉘는 그 부분에서 왼쪽 길을 택한 태아는 급기야 왼쪽 귀를 통해 나오고야 말았다.

애는 태어나기가 무섭게 보통 애처럼 "앙! 앙!" 하고 울지 않고, 목청껏 "술! 술! 술!" 하며 모든 사람에게 한 잔 하라는 듯 부르짖었으니, 심지어 뵈스(Beusse)나 비바루아(Bibarois) 지방에서조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여러분은 이처럼 괴이한 출생을 그다지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아도 걱정될 건 없지만, 선량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들은 말이나 책에서 읽은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의 법규나 신앙이나 이성이나 성서에 어긋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로서는 성서에서 그런 일에 반대되는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 가령 하느님의 뜻이 그러했다 할진대, 여러분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하겠는가? 제발, 그런 헛된 생각으로 정신이 흐리멍텅 어리둥절해지는(emburelucoquez) 일 없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고하노니, 하느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므로 만일 하느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여자들은 이제부터 것처럼 귀로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각 문단을 하나의 예화로 생각해 보면, 예화들은 모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렇게 괴이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이라면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어**에 다름 아니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말이라면 이딴 이야기도 믿냐, 이 병신들아?**’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화일반화는 **반어법만 조심**하면 제시문이 이야기로 나왔을 때 해당 제시문을 거저 먹는 유용한 스킬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예화일반화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S	V	O
길브레스	줄이다	낭비를
길브레스	줄이다	낭비를
길브레스	줄이다	낭비를

이처럼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한 예화가 있는가 하면,

S	V	O
고릴라 1 (이카루스)	공격한다!	마체사 (죽음, 죽은 자)
고릴라 2 (미란다)	공격한다!	마체사 (죽음, 죽은 자)
고릴라 3 (파피)	공격한다!	마체사 (죽음, 죽은 자)

이렇게 교묘하게 예화일반화의 주어가 하나하나씩 바뀌는 예화일반화도 있다.
우리는 본 과에서 이러한 예화 일반화의 개념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예제

2009학년도 정시 창조와 파괴 문제는 역대 연세대 문제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문 (다)를 보기만 해도 구토와 발열을 일으켰던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문제 발문

‘창조’ 와 ‘파괴’ 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이 문제의 특징은 아직까지의 다른 문제와는 달리 문제 전체의 주제가 두 가지라는 점에 있는데, 역대 연세대 문제에서 작은따옴표 (")로 강조해 주는 단어가 웬만하면 하나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만일 이 문제에서 예화일반화를 한다면 두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시문 (다)의 길이는 다른 제시문보다 두 배로 길다. 이렇다면 무언가 뻔이 오지 않는가? 그렇다. 바로 예화일반화를 두 번 하는 것이다.

주제가 창조와 파괴 두 가지이니 예화일반화도 당연히 ‘창조’ 의 예화와 ‘파괴’ 의 예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 설명한 예화일반화의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후자, 즉 주어가 여러 가지인 예화라는 것이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한다. 그렇지만 쫓지 말자! 어디까지나 예화이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제시문 (다)

역사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일련의 위계적인 신분들 사이에 맺어진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 기사, 평민, 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봉건영주, 가신(家臣), 장인, 견습공, 농노 등이 있었으며, 각 계급 내부에도 거의 예외없이 위계질서가 존재했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통해서 출현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 역시 계급 대립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과거를 대체할 새로운 종류의 계급, 새로운 억압 조건, 그리고 새로운 투쟁 형태를 선보였을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발전 단계에는 각각 그에 조응하는 정치적 발전이 수반되었다. 원래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영주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을 받던 신분에서 출발하여, 중세 꼬뮌과 같은 자위능력을 갖춘 자치공동체,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독립적인 도시공화국, (프랑스에서처럼) 군주의 과세대상인 ‘제3계급’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가내수공업 시기에는 반(半)봉건적 또는 절대주의적 군주제에서 귀족에 대한 대항 세력이자 군주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근대 산업 및 세계시장의 등장과 함께 드디어 부르주아 계급은 근대 대의제 국가를 통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쟁취했다. 근대 국가의 행정부란 전체 부르주아 계급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다름 아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상전(上典)에 묶어놓았던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별거벗은 이해관계 내지는 ‘금전적 수수관계’만 남겨 놓았다. 종교적 열정과 고귀한 열망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기중심적인 차가운 이해타산으로 바꿔놓았다. 인간적인 가치를 교환가치로, 또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자유를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비인간적인 자유로 대체했다. 한마디로 종교적, 정치적 베일에 가려있던 착취를 적나라하고 물엿치하며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착취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중략.....]

관념의 역사는 정신적 생산이 물질적 생산의 변화에 발맞춰 변해왔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각 시기의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계급의 관념이었다. 관념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중략.....]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본질적 조건은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고, 자본의 조건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산업의 발전은 경쟁으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리 상태를 결사(結社)를 통한 혁명적 단결로 바꿔놓는다. 따라서 근대 산업의 발달은 부르주아 계급의 생산과 착취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킨다. 결국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활동을 통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모두 불가피하다. [.....중략.....]

정치권력이란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에 불과하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되고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조건들을 폭력적으로 지양(止揚)한다면, 이는 곧 계급 대립의 조건들 및 계급 일반, 더 나아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지위까지 지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계급갈등으로 점철된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주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두 계급이 등장한다. 우선 '창조' 부터 예화일반화를 해 보자.
 S는 V하다 - O를 위해 (S V for O : 13페이지 참조) 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VO 기법을 쓸 때 전치사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S	V	O(창조)
부르주아	혁명 발전	지배권을 쟁취하다 지배계급이 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전	지배권을 쟁취하다 지배계급이 되다

이제는 '파괴' 를 예화일반화할 차례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제시문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시문에서 파괴를 가장 먼저 당한 대상은 부르주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인 사회관계를 해체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상전(上典)에 묶어놓았던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찢어버리고...(후략)

다음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르주아가 찢어버린(파괴시켜버린) 대상은 바로 '봉건 영주' 이다. 따라서 파괴의 예화에서는 이들을 가장 앞에 놓아야 한다. 봉건 영주는 부르주아를 속박하다가 파괴당했다.

S	V	O(파괴)
봉건영주	속박	찢어짐(파괴)
부르주아	착취	몰락(파괴)
프롤레타리아	지양	끝

마찬가지로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다가 몰락당했다. 속박과 착취는 결국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예화일반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경우 속박이나 착취 대신 '지양' 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사가 바뀌는 지점은 바로 예화일반화가 끝나는 지점이다. 2009학년도 수시 제시문 (다)에서도 '닥쳐라' 라는 동사가 '따르라' 라는 동사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예화일반화가 끝나는 지점이었다.

이 두 예화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복예화가 등장한다.

S	V	O
봉건영주	속박	찢어짐(파괴)
부르주아	혁명 발전	지배권 쟁취(창조)
부르주아	착취	몰락(파괴)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전	지배권 쟁취(창조)
프롤레타리아	지양	끝

지양은 스스로의 위치를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뜻이므로 속박이나 착취와는 동사가 다르다. 따라서 이 예화일반화는 여기서 종결하게 된다. 이 예화일반화가 주는 메시지는 창조와 파괴의 ‘끝’, 혁명과 발전의 ‘끝’ 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예화일반화가 뭉쳐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복예화일반화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 볼 수 없고, 다른 두 제시문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긴 제시문이 등장할 경우에만 의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킴이다.